

\*\*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\*\*

- 추수감사주일: 다음 주일 14시 연합예배, 성찬식
- 전자피아노가 마련되었습니다. 사랑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- 디아코니축제 수익금: 2.802,14유로
- 말씀일기 문집 원고 제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- 라합3 나라모임: 매주 목요일 9시 권순아 님 가정
- 선교사들께 편지쓰기 협조요청(유초등부): 좋은 아이디어나, 편지 혹은 물질후원으로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.
- 한국방문: 김학순
- 생일: 박재희, 조경숙, 김학순
- 담임목사: 예정 독일선교회 모임 참석(9월 25-27, 베를린)

◆ 말씀일기 일정

일/왕상8:44-53    월/왕상8:54-66    화/왕상9:1-9    수/왕상9:10-28  
 목/왕상10:1-13    금/왕상10:14-29    토/왕상11:1-13    일/왕상11:14-25

◆ 114 운동-하루(1) 한번(1) 말씀일기 & 성경 (4)장 통독  
 성경 300독 대행진: 210독

◆ 예배위원 안내 ◆

	9월 24일	10월 1일	10월 8일	10월 15일
예배기도	전정혜	추수감사주일	석혜진	이정윤
안내위원	예배부			
헌금위원	민경웅, 석호선	배진우, 유근임		
애찬위원	밥상 둘	밥상 셋	밥상 넷	밥상 다섯



“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”(시편 98:1)



주일예배 12:00 Teestube 믿음방  
 14:00 Mutterhauskirche  
 유초등부 14:00 Teestube 평화방  
 청소년부 14:00 Teestube 믿음방  
 청년부 15:30 Teestube 믿음방

토요기도회 07:00 Teestube 믿음방



담임/ 손교훈 목사 Kyo-Hoon Sohn  
 ☎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  
 교육/ 이동훈 목사 HP. 01525-2367 629  
 교육/ 박승은 목사 HP. 0157-3845 5550  
 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 8일 창립

뒤셀도르프선교교회

교회 홈페이지 [duemission.de](http://duemission.de)

교회당 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

# 주 일 예 배

인도: 손교훈 목사

※입례송/Eingangslied .....	왕이신 나의 하나님 .....	다 함 께
※예배부름/Eingangsgebet .....		인 도 자
※찬송/Gemeindelied .....	6장 .....	다 함 께
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.....		다 함 께
성시교독/Wechselwort .....	교독문 72번 .....	다 함 께
찬송/Gemeindelied .....	464장 .....	다 함 께
기도/Gebet .....		전정혜 교우
찬양/Chor .....	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.....	찬 양 대
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.....	창세기 41:37-57 .....	인 도 자
설교/Predigt .....	<b>평생 성공</b> .....	손교훈 목사
찬송/Gemeindelied .....	465장 .....	다 함 께
봉헌/Kollekte.....		다 함 께
교제/Bekanntmachung.....		다 함 께
※주기도송/Vaterunser.....		다 함 께
※축도/Segen .....		손교훈 목사

※ 표는 일어섭니다.

## \*\*교회 구좌\*\*

Ev.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.V.

Bank: Stadtparkasse Düsseldorf

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

## ▶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왕상7:40-51 '눅쇠 대장장이' ◀

“히람이 또....만들었더라.”(40)

솔로몬 성전의 눅쇠 대장장이 히람.

우리로 치자면 한독 가정의 아들이었던 그는,

모든 낫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갖춘 자였다.

하나 하나 정성스레 녹여 붓고 두드려 만든

눅기둥, 바다, 받침 수레, 물두멍, 부삽과 대접들까지

구석구석 그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다.

주님은 마치 눅쇠 대장장이 같아,

나를 녹이시고, 두드리셔서 빛나게 하신다.

주님의 '깊은 다루심'(deep processing) 가운데

나는 멋진 기둥으로, 쓸만한 그릇으로 다듬어져 간다.

그 분명한 손길을 느끼며,

나도 그 손길 닦아가기를.

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을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

쓸만한 조수로 쓰임 받기를.